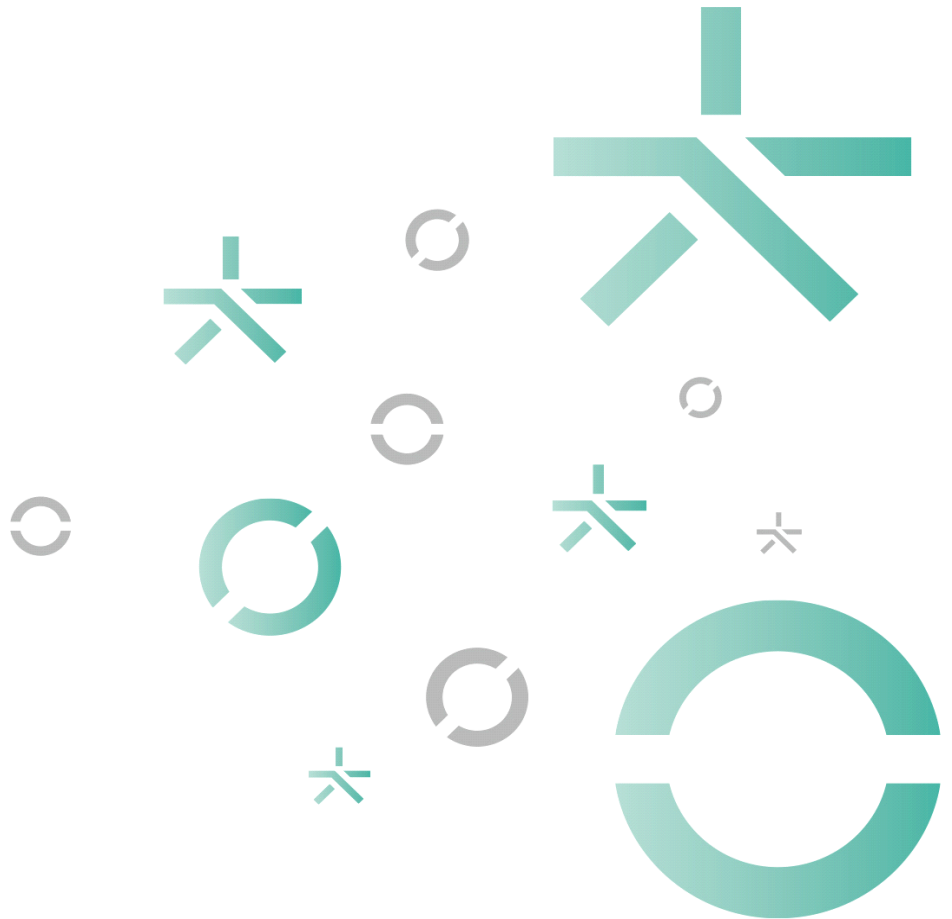


#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김수한·전유정



#### 연구책임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연구참여

전유정      경제환경연구부 전임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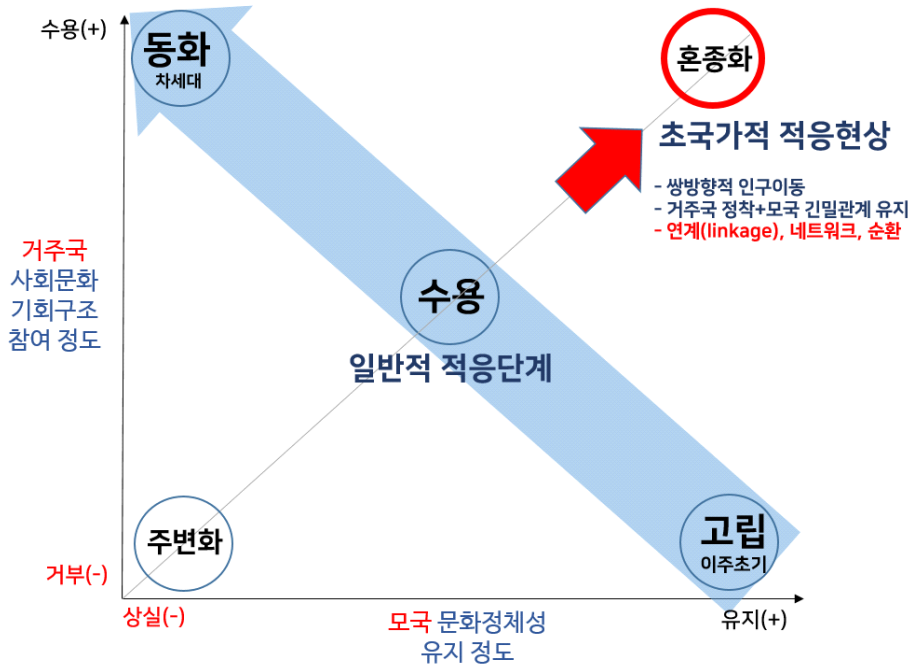
-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이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한인과 모국인 한국을 연결하는 재외한인 플랫폼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본문의 2장에서는 국내외 여건 파악을 위하여 ①재외한인 현황·특징 ②세계 주요 디아스포라 집단 정책의 특징 ③정부·인천시의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3장에서는 재외한인 관련 ④인천의 지역자산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정리함

## 2. 재외한인 현황 및 정책 동향

### 1) 국가·지역·세대별 분화와 수렴

-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 국면에서 재외동포가 보이는 혼종화 경향에 주목함. 즉 재외한인을 결절점으로 하여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함
  - 1980년대 이후 탈냉전과 정보통신·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람·정보·문화·자본의 유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재외동포 특징이 변화하기 시작함. 특히 모국인 한국의 국가 위상이 크게 제고되면서 모국과의 긴밀 관계를 유지해 거주국 참여 정도를 심화시키는 일종의 혼종 양상이 나타남
- 연구에서는 인천이 재외동포 정책 집행기관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지렛대로 삼아 재외한인 연계망을 통해 사람·문화·자본·정보의 순환과 활용의 증추 역할을 하는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재외동포 중심지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와의 시정 지향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요약 그림 1] 재외동포 적응단계 - 일반적 적응 vs 초국가적 적응



자료(출처): 윤인진(2013:244-252); 윤인진·이윤경(2017:36-45)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다양한 디아스포라 유형 및 모국 정책 - 고급두뇌 링크 경향 주목

- 세계의 대표적 디아스포라 집단은 민족 본연의 특징, 이주의 성격, 거주국의 민족정책, 모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 등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유형을 보임
- 해외의 여러 국가가 전통적 투자 유치 모델에서 벗어나 해외 고급 두뇌와의 링크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및 정책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는 첨단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4대 산업을 지정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음
- 이 같은 정부 및 인천 여건에 주목, 첨단 신산업 분야의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경제인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요약 표 1] 세계 주요 디아스포라 집단의 특징 및 정책·사업

구분	중국 해외동포	이스라엘 해외동포	인도 해외동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동포: 6,000만 명</li> <li>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 집중</li> <li>민족 문화적 동질성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동포: 1,600만 명</li> <li>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 집중</li> <li>강한 공동체 의식·연대감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동포: 3,200만 명</li> <li>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집중</li> <li>영어 공용어 사용, 언어장벽 ↓</li> </ul>
모국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교투자 기업 우대 조치</li> <li>중화인민공화국귀교교권권의 보호법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민간기구가 결합한 귀환 동포 정책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도인 특별 우대 조치 시행(OCI)</li> </ul>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화상대회</li> <li>한-세계화상 비즈니스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 바스켓(Absorption Basket)</li> <li>대출기금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지식교류 네트워크 구축</li> <li>기업가 멘토링 협업</li> </ul>

자료(출처): 본문 조사내용 정리

### 3)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특징 및 고려 사항

- 재외동포청 신설로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사업은 일종의 조정기에 있음. 기존 사업·재외동포청 자료를 참고하여 재외동포 주요 정책·사업을 법무·영사/조사/지원/협력의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재외동포청 주요 정책의 특징 및 이와 관련한 인천의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요약 표 2] 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특징 및 인천 고려 사항

정책·사업		주요 내용 및 특징	인천 고려 사항
법무 영사	정책	※ 국가 사무	-
	해외이주, 민사사법공조		
	영사, 출입국		
조사	연구 실태조사	해외공관 인구 실태조사 아시아/북방 - 미주·유럽 분화	시책 추진 위한 해외지역 정보 (북방, 경제인 등) 구축 필요
	지역별 조사		
지원	재외동포 단체 지원	한인 단체 분화 중개조직 난립	고급두뇌집단, 차세대 등 대상 특화 필요
	차세대동포 지원		
협력	해외입양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플랫폼 조성 및 지원 위주의 사업 ※외교부 특징 반영	시장서비스×/ 공공서비스 ○ 인천-선순환 영역 발굴 필요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자료(출처): 저자 정리

- 재외동포청의 '전통적' 지원·협력 사업을 인천에서 무분별하게 ▲편승 ▲차용할 때 자칫 형식적인 행사와 사업의 유치·참여 위주 사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
- 인천의 독자적인 해외지역·재외한인 정보 및 연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초하여 인천의 지역 사회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함
- 재외한인과의 연계망 구성에 있어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의 전통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편, 화교 및 인교 등을 벤치마킹하여 고급두뇌집단·차세대 협력을 중심으로 한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이 지향하는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음
-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반서비스와 차별성을 두어야 함. 또한 시장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의료·관광 지원 서비스보다는 공공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차세대 민족 정체성 회복, 귀환 동포 지원 등 재외한인 특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사업의 기획과 운용이 필요함

### 3. 재외한인 관련 인천 지역자산 현황·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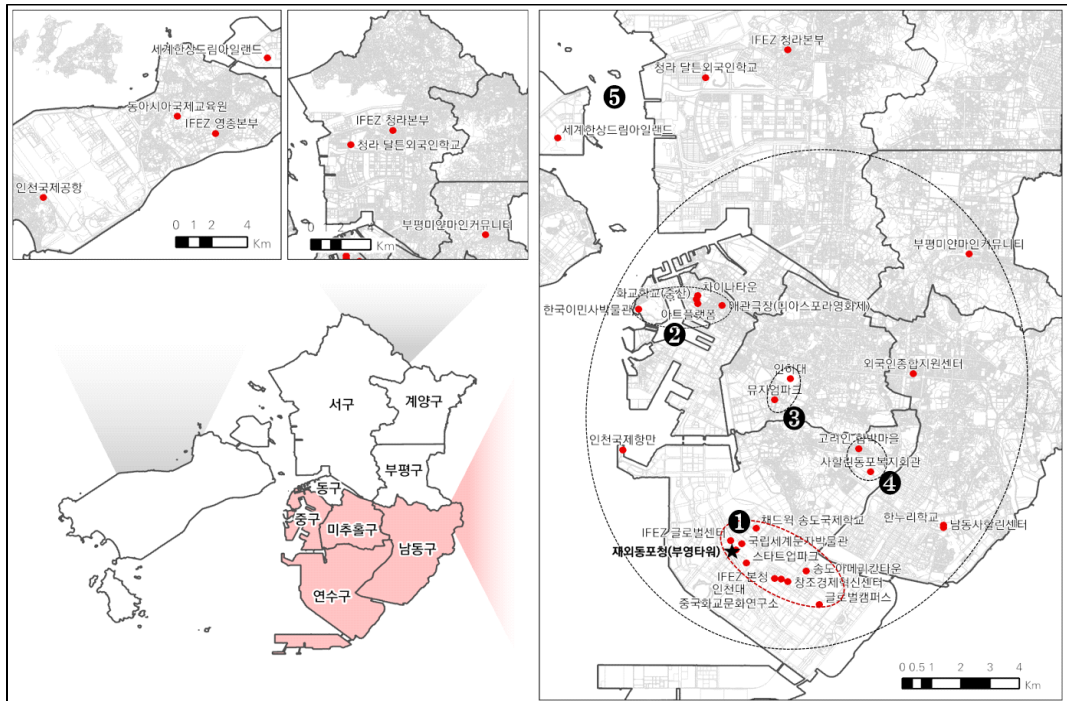
#### 1)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산과 글로벌 협력 기반

- 재외동포 이주의 출발지인 인천은 관련 다양한 사회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대표적인 자산으로 한국이민사박물관, 인하대 및 관련 연구소 등을 들 수 있음. 그밖에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풀뿌리 단체에서 문화 전시 및 축제 등 사업을 진행함. 문호도시라는 도시의 역사 문화와 위상,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글로벌 도시 지향과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음
- 이와 같은 자산 및 여건을 활용하여 어떻게 재외한인 지역자산과 글로벌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분산된 공공 및 민간의 지역자산과 조직을 보다 총괄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임

## 2) 권역별 특화된 지역자산 분포

- 인천의 재외한인 관련 지역자산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 송도 권역에 글로벌 사회·경제 자산이 집중하여 분포함
- 개항장에 문화유산 그리고 인하대 및 2027년 조성 예정인 뮤지엄파크는 연구·문화 거점, 그리고 함박마을 중심으로 한 귀환 동포 집거지가 조성되어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지향하는 재외한인 플랫폼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경제 자산이 집적해 있고 재외동포청과 인천시 재외동포 웰컴센터 기획과가 자리하고 있는 송도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공간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 그러나 동시에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요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플랫폼 도시 조성의 시너지 효과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함

[요약 그림 2] 인천 재외한인 및 글로벌 관련 지역자산 분포



● 글로벌 사회·경제 중심 ● 개항장 문화·유산 중심 ● 연구·문화 거점 ● 귀환 동포 집거지 ● 잠재 발전지역  
 자료(출처): 필자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제작

## 4. 정책 제언

- 대내외 정책 및 지역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중점 사업을 제안함

[요약 그림 3]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과 중점 사업



자료(출처): 저자 작성

- **(구심점, 글로벌웹캠 클러스터(GWC) 조성)** 재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재외동포 중심 도시로서의 인천 위상 및 대외적 인지도 제도를 위해서는 공간적 구심의 조성 및 이를 활용한 시민 공감대 조성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재외한인 연계망 구축)** 형식적인 행사 유치·참여가 아니라 재외한인과 지역의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계망의 창출과 참여 필요
- **(디아스포라 사회문화 토대 마련)** 인천의 풍부한 유·무형의 디아스포라 문화자산 가치를 발산할 수 있도록 문화적 중추공간·거버넌스 확립으로 지속가능 기반 구축
- **(힘 있는 추진체계 수립·운영)**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와 동시에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을 선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구성함. 창발적인 인천 시정의 기획·운용을 위해서는 선도기구의 전문성과 추진 역량 긴요

주제어 ▶ 재외한인, 연계망, 사회문화 토대, 추진체계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http://www.ii.r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